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029호 1판 (음력 5월 23일) 2015년 7월 8일 수요일

우암학원 창학65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 뿌리째 흔들린다

운영조직 1전당장·4과·50명으로 축소 국무회의 통과

추진단 '課'단위 전락 … 7대 문화권 조성 차질 불가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운영인력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조성사업)을 책임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규모를 크게 축소한 문화부 직제 개정(안)이 광주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있는 '문화수도 광주'는 출발부터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에 빠지게 됐다. 〈관련기사 7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문화전당의 운영조직 등을 구성하는 내용의 문화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와 정원은 1전당장 4과, 정원 50명(계약직 공무원 18명 포함)이다.

이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초 구상했던 1전당 6과, 정원 112명보다 크게 축소된 것이다. 또 문화전당 운영에 최소 8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용역 결과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문화전당을 운영할 50명의 인력도 신규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직원 40명 가운데 32명이 이관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8명만 남게 되면서 문화부의 1개 과(課)로 전락, 조성사업의 핵심과제인 7대 문화권 조성 사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추진단이 조성사업의 전체 4대 현안 가운데 문화전당 건립운영을 제외한 3개 과제(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를 추진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 과제는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되는 조성사업의 핵심현안이다.

정부는 이날 시행규칙 수정을 통해 문화전당 전당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 나등급(2급 국장급)에서 전문임기제 가등급(1급 상당)으로 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시행령 개정에 맞서 아특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혜자 새정치연합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직제 개정령 통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를 아시아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즉각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 문화수도 광주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 야당의 현실을 감안하면 아특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19대 국회 내에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9월4일로 예정된 문화전당 개관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창조원의 5개 전시공간 가운데 문화전당 개관일정에 맞춰 전시를 선보이는 공간은 1곳(복합 4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옛 전남도청 등을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내년에야 완료된다. 문화전당이 9월4일 문을 열게됨에도 국내외 인사들을 초청한 공식 개관행사가 11월25일로 미뤄진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평균대의 별 광주유니버시아드 기계체조 여자 평균대 경기에 참가한 러시아의 페도로바 폴리나가 아름다운 평균대 연기를 펼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4대 권력기관 50대 요직

호남 1·영남 28명

새정치 박지원 의원 지적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정 기관의 영남 편중 인사를 지적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사정의 칼에는 눈이 없다지만 센서와 리모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사정 기관 고위간부 출신지역의 불균형을 비판했다. 〈관련기사 6면〉

박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4대 사정기관 즉, 감사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의 50대 요직에 영남이 28명으로 57.1%이고 호남은 단 한 명, 수도권 8명, 충청권 10명, 기타 2명"이라며 "이것은 편중 인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또 "4대 기관장이 다 영남 출신이고 2인자도 경찰청을 제외하면 모두 영남"이라며 "검찰은 총장,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 민정수석, 법무비서관이 영남이고 국세청 역시 단 한 사람만 호남 국장이어서 모두 영남 편중"이라고 지적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으로

옛 광양역사에 건립 확정

전남도립미술관의 건립 위치가 광양시 구 광양역사로 확정됐다.

전남도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6~7일 이틀간 전남 동부지역본부에서 도립미술관 건립 유치를 신청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건립 위치를 최종 확정했다. 도립미술관 건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 동부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민선6기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사업이다.

전남도는 오는 2018년까지 총 300억원을 들여 연면적 8000㎡ 규모로 전시실, 수장고, 편의시설을 갖춘 도립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

도심 누비는 U대회 외국인 선수들

국제도시 광주, 젊음·활력에 '들썩'

전 세계 젊은이의 스포츠 대축제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광주 도심 곳곳이 젊은 활력으로 들썩이고 있다.

더불어 대회 초반부터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 시민들이 도심 곳곳에 북적거리는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도 눈익은 모습이다. 시민들이 친절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미담사례가 이어지면서 U대회를 통해 이루려던 '국제도시 도약'이라는 목표에도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U대회 관련기사 ▶2·3·4·5·10면

7일 오후 광주의 대표적 도심 번화가인 동구 충장·금남 상가지역에는 삼삼오오 무리지어 도심 나들이에 나선 외국인들로 가득 찼다. 커피숍과 빵집·의류·화장품 매장 등에선 외국인 손님 응대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언어소통은 서툴렀지만, 웃는 표정으로 간단한 영어와 손짓 몸짓을 통해 외국인과 소통하는 모습은 '국제도시 광주시민'으로 부르기에 손색없었다. 외국인 손님을 마주한 시민들도 먼저 다가가 친절한 미소로 'Hi' 등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는가 하면 도심 안내를 나서는 이들도 있었다.

스타벅스 충장서림점에서 근무하는 장서연(여·24)씨는 "평소 외국인 손님이 한 명도 없던 가게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드니 마치 뉴욕 스타벅스점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며 활짝 웃었다.

화장품 체인점인 더페이스샵 광주충장로점 매니저(여·26)도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몇 마디를 연습해 놓았는데, 덕분에 가게 매출도 쑥쑥 오르고 있다. U대회가 1년 내내 열렸으면 좋겠다"며 반겼다.

광주 도심 나들이에 나선 외국인들의 입에서도 연방 'Wonderful', 'Excellent' 등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미국 남자 배구 코치 데이비드 헬러(29)는 "친절 광주의 매력에 빠졌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었다. 선수들과 함께 충장로를 찾아 쇼핑한 그는 "서점에서 조카들에게 줄 한국어 동화책을 구입했는데, 점원이 서툰 영어로 끝까지 도와줘 감동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캐나다 농구 선수 조니 버한(22)씨도 이날 시내 첫 나들이에서 처음 맞닥뜨린 금남로지하상가를 보고 'Cool(멋지다)'이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캐나다에는 이런 지하 상가거리가 없다. 비나 눈이 올 때도 쉽게 쇼핑할 수 있는 장소가 광주에 있다는 게 부럽다"고 했다.

대회가 무르익으면서 광주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빛을 발하고 있다.

관공서와 시민들이 차량 2부제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선수촌과 경기장 주변 시민들은 어쩌다 소음이 발생해도 모두 이해해줘 '민원제로'를 이어가고 있다. 광덕중·고교와 서석고 등 선수촌 주변 학교들은 자발적으로 운동장을 훈련장으로 제공하는 등 친절에 앞장서고 있다.

/특별취재단=박진표·백희준기자 lucky@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